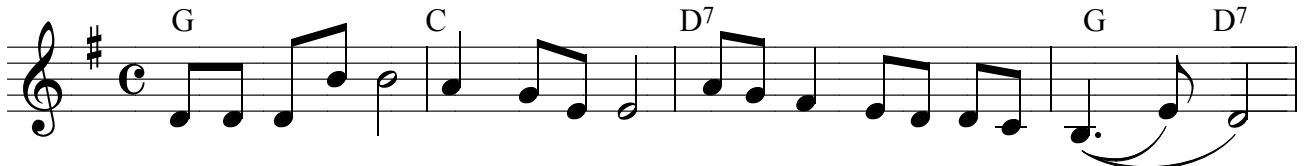


1969

# 주님의 빛진자

김석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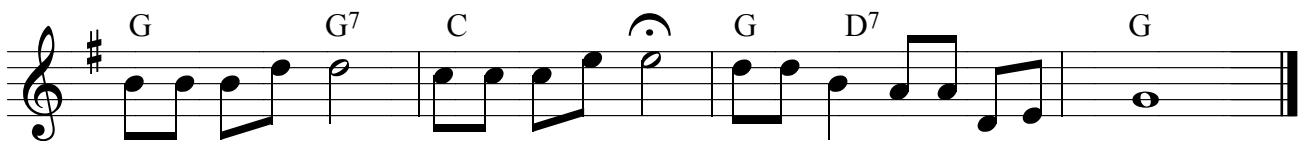
1.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했네 - -  
 2.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하셨네 - -  
 3. 평생값아도 빛진자되어 주님의 빛진자되어 - -



죽음의 멍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했네  
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 
 주님가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



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 
 기도할 때에 음성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주시네  
 생명주신이 주님이시라 능력주신이 주님이시라



새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드리리  
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불들린자라  
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값으로 드리